

가리봉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

용도지역 용적률 76% 상향... 아파트 370가구 신축

공영주차장, 도서관, 생활SOC 등 공공시설 국비 지원

"지역 투기거래 조짐땀 국세청 통보, 경찰청 수사 의뢰"

가리봉동 134-58 가리봉과출소 북측 일대 1만3천604㎡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구로구 가리봉동을 비롯, 경기 수원·안양시, 인천 미추홀·서구, 대전 대덕·동구 등

등 전국 7곳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서울시 관내에선 가리봉동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쇠퇴도·면적 등) 재생 시급성(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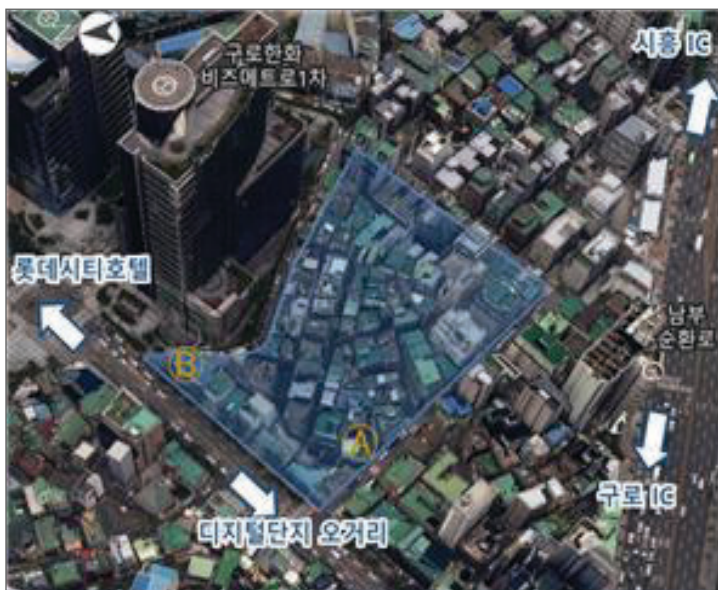
사업가능성(주거·공공시설 규모 등) 등을 검토해 최종 7곳을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등 공공시설에 국비를 지원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2면으로 계속>

<김유권·채홍길 기자>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점등 구청 앞 광장에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5월 19일)을 봉축하는 등에 불이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해와 같이 점등식은 생략하고 관계자의 점등으로 대신했다. 점등된 연등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염원을 담아 오는 5월31일까지 구로구 곳곳 가정에 부처님 자비의 등불을 밝힌다.



가리봉동 134-58 일대 1만3천604㎡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진은 가리봉동 주거재생 혁신지구 위치도)

다문화정책과 → 상호문화정책과로 명칭 변경

4월 29일자 조직개편... 내·외국인 주민 '상호문화도시' 조성

구로구가 지난 4월 29일자로 '다문화정책과'를 '상호문화정책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구로구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초점을 둔 '다문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외국인 주민의 상생을 추구하는 '상호문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2018년 1월 구로구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했다.

기존 다문화정책과에는 다문화정책팀, 다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 등 3개 팀이 배치됐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정책 발굴과 지원, 각종 다문화 관련 행

사 개최, 인식 개선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다문화정책과는 상호문화정책과로, 다문화지원팀은 각각 상호문화정책팀과 상호문화지원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주원 상호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이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진정한 '상호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유럽평의회 상호문화 지표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채홍길 기자>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한시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 ①(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②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③(재산기준) 6억원 이하
- ④(위기사유)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

지원금액

가구별 50만원 계좌입금(6월중순이후)
(가구원 수 무관 / 1회 지급)

문의처

- 구로구 콜센터(02-2620-774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 5. 10.(월) ~ 5. 28.(금) 22:00
출석제(출생연도 끝자리)

현장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 ~ 5. 28.(금)

복지로 QR코드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가능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보조금 신청하세요”

10년 이상 비거주용 건물... 공사비 80~100% 지원

구로구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 및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창호, 냉·난방기, 조명 등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자체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자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비거주용 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자다. 공사비용의 80~100%(1000만원~20억원)가 지원되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 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용자는 모두 ‘제로금리’가 적용되며 8년간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도 제공된다.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을 1등급 이상 취득할 경우 인증 수수료 전액과 시공 자재비의 4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인증 수수료만 전액 지원한다.

보조금은 설계(시공) 업체나 ESCO 사업자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뒤 시공이 완료되면 지급받는 방식이다.

용자,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이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홈페이지(brp.es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대상,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홈페이지 또는 구청 환경과(860-28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자 지원의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문의) 구청 환경과 860-2888.

〈김유권 기자〉



가리봉동 134-58 일대 1만3천604㎡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진은 개발조감도. 조감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동될 수 있다.>

가리봉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

〈면에서 계속〉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가리봉동 370가구를 비롯해 7개 지역에서 모두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공영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SOC 및 공공복지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가리봉동의 주거재생혁신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대는 국가 산업단지(북측)와 남부순환로(남측)가 위치해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돼 개발되지 못했다. 노후도는 84.7%에 달한다.

국토부는 쇠퇴 주거지를 도심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공영주차장·도서관·소규모 체육관 등의 생활SOC와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거점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주택도시기금(도시계획) 출·용자 지원 등의 지원도 받는다.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혜택으로 용적률은 민간 개발 대비 평균 76%포인트(p) 높아진다. 공급 가구 수는 평균 1.3배 증가한다.

또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됨에 따라 실

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조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사업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조속히 세부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6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동의요건을 확보해 연내 지구 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배광선 구로구청 도시재생과장은 “구로2동도 함께 신청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안타깝다”며 “이번에 선정된 가리봉동지구는 빠른 시일내 주민동의 여건을 갖춰 주거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3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의회 차원에서 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출입자 명부 작성, 행사장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김희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동웅 의장을 비롯하여, 이명숙, 최숙자, 노경숙, 정대근, 박경길 의원이 함께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와 관계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서 의원은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례 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제



구로구의회는 3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로 제정 법안과 구로구의 관련 자치법규 비교 검토, 쟁점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로지방자치 시민연대 안병순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이해충돌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주제발표 후 참여자들의 자유롭고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박동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아가 할 것이며, 이번 토

론회가 첫 신호탄이 된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나가고 아울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자”고 말했다.

김희서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동료의원, 시민단체,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해충돌방지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실효성과 타당성을 갖춘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을 위해 구로구의 관련 행동강령과 조례를 함께 검토·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민들과 공직자들의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고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례 마련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 통과... 대상자 190만명

국회의원·공무원·공공기관 직원·지방의원 등 포함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예방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재석 251인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이다.

공직자 범위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원 등

190만여 명에 이른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5월 30일부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유권 기자〉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취임식 13일 개최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이 13일 오후 2시 구로5동 대 한노인회 구로구지회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임하는 이형춘 이사장은 6년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

서도 구로희망복지재단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번에 취임하는 조운장 이사장(66세)은 현재 (주)삼우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다. 〈채홍길 기자〉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하자마자 운전자 ‘불만’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30km 미만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되자마자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뺨 뚫린 여유 있는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으로 분통이 터지고 이를 빌미로 곳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평균 속도 60km에서 10km를 낮추고 안전속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정책이다. 실제로 OECD국가도 우리의 높은 운행속도를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고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수도 시속 60km인 경우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10km를 낮추어 시속 50km로 했을 경우는 10명 중 5명만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문제점 많아

문제는 5030 정책은 큰 의미가 있으나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다. 우선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선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앞의 신호등이 흐름을 따라 녹색 신호등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간은 지체되고 운전자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10차선 도로도 50km로 가야

현행 시행법은 도심에서는 무조건 50km로 가야한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가 시속 50km로 되어 있지만 지방경찰청이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60~70km로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에도 시속 60km를 그대로 고수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무작정 시속 50km로 낮춘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구로5동 가로공원 앞처럼 왕복 8차선이 그런 경우다. 최근의 도로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여 중앙분리대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고 갓길과 도로 폭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직진성과 시야가 확보되어 충분히 속도를 높여도 안전한 운행과 보행자 보호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속도 제한을 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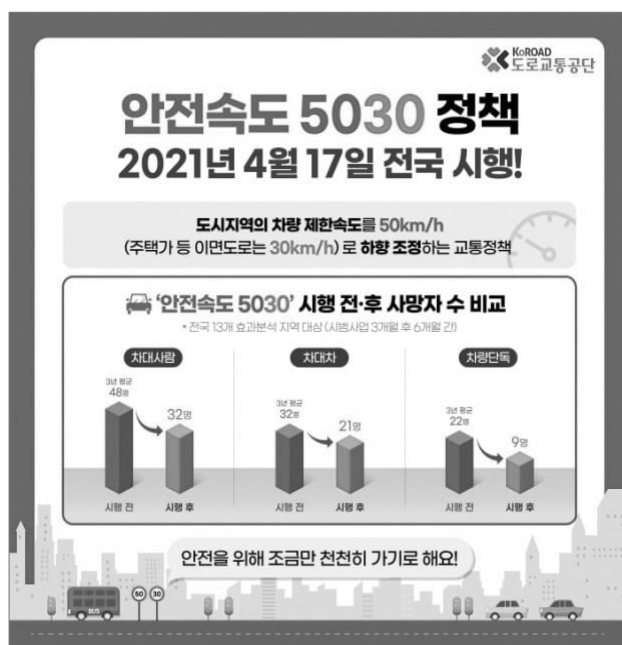
◆도심 주행이 답답해 졌다

불만의 대부분은 도심 주행이 너무 답답해졌다는 것인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기 전 홍보문구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였지만, 막상 속도를 줄이니까 전방 주시를 해야 하는데 계기판만 보게 된다는 점에서 안전에 허점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도림동에 사는 주민 허 모씨(53세)는 25년째 무사고로 운전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속도를 낮추니까 전방 주시에 태만하게 되고 계기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하마터면 접촉 사고를 낼 뻔 했다.며 충분한 계도 기간과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30km 미만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되자마자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뺨 뚫린 여유 있는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으로 분통이 터지고 이를 빌미로 곳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구로5동 가로공원 앞 왕복 8차선 도로에 30km 이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도심 간선 50km-이면도로 30km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 뺨 뚫린 도로서 굼벵이 운행 ‘분통’... 곳곳 속도 규제 표지판 “거리공원 왕복 10차선 등 지역 상황따라 속도 제한 규정해야”

◆자동차의 연비는 누가 책임지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에도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안전과 함께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연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름 값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주유소 마다 자율적으로 기름을 파니까 조금 싼 곳은 새벽부터 줄을 서기 일쑤다.

자동차의 연비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2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고시에 따른 도심주행 연비 측정 방법은 1975년 미국 도심 지역 차량 흐름을 반영한 연비 측정방법인 FTP-75 모드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17.85km를 42분동안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속 60km를 전후하여 가감속을 반복하는 시험 구간이 가장 많다. 또한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나 버스, 적재중량 1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시속 60km의 정속주행 상태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대체로 시속 60km를 전후하여 최적의 연비가 나오도록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고, 따라서 시속 50km를 전후하여 변속이 이루어져서 시속 60km에서 최적의 엔진회전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동차가 많다. 그렇다 보니 시속 50km로 줄어든 도심 제한속도에 맞추어 운전을 하다보면, 변속기가 계속 기어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거나, 시속 60km일 때보다 낮은 기어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를 더 높게 쓸 수밖에 없고, 높은 엔진회전수를 쓰면서 주행할 경우 배출가스 증가, 특히 미세먼지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경과 연비에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과속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많은 구민들이 60km로 달리다가 50km로 낮추니까 너무 거북이 걸음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빨리 이동해야 하는 급한 일이 있는데 50km로 줄이니까 그 10km가 많이 답답하더라는 구민도 있다.

그러나 과속을 하면 구속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km 초과 시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1년간 누적된다.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곧바로 면허취소가 된다.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곧바로 면허 취소의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과태료 면제 사유도 있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면제 사유가 있다.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와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면제 사유다. 출산 앞둔 임부가 위급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서 출산을 앞둔 임부를 이송하는 등 응급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과태료 면제사유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전동 킥보드 5월 13일부터 규제 실효성 문제

오는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현행법만 16세이상만 취득 가능) △헬멧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이 적용된다.

또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벌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벌칙금 4만원) △안전모미착용(벌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정주차장소 위반(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뺨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령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법규 준수 마인드 △한정된 인력과 업무 과중 등으로 경찰 단속의 실효성 등은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는다.

카셰어링처럼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공유 킥보드를 선택한 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자가 예약한 시간동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 키로 시동 등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탑정호 사고처럼 대여자와 실제 운전자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6세가 넘는 형 명의로 공유 킥보드를 대여하고 이를 운전 제한 연령인 동생이 탈수 있다는 얘기도.

안전모 착용도 실효성과 위생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한다는 회사원 최씨(34)는 “안전과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할 것”이라면서도 “계속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만수 기자>

‘구로히어로즈’ 64호·65호 기부자 탄생

윤재현 (주)성우인터캠 대표·귀뚜라미 그룹, 회원 가입 사회공헌인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에 명패도 등재

구로구가 지난달 28일 ‘구로히어로즈 명예의 전당’ 현액식을 개최했다.

구는 “성우인터캠 윤재현 대표와 귀뚜라미 그룹(회장 최진민)이 구로히어로즈 회원이 되고 명예의 전당에 제64호, 제65호로 각각 명패를 달았다”고 밝혔다.

‘구로히어로즈’는 2017년 창단된 구로구의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2001년 이후 개인 3,000만 원, 법인·단체 5,000만 원 이상 기부 또는 기부 약정한 경우 구로히어로즈 회원으로 가입되고 구청 본관 1층에 위치한 ‘구로히어로즈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명패가 등재된다.

(주)성우인터캠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기부자 윤재현 대표는 현재까지 기부한 1,000만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3,0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법인 기부자 귀뚜라미 그룹은 5,000만원을 기부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날 행사에는 이성 구청장, 윤재현 대표



구로구가 지난달 28일 ‘구로히어로즈 명예의 전당’ 현액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 구청장, 윤재현 성우인터캠 대표,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김한기 ‘구로히어로즈클럽’ 회장>

와 귀뚜라미 그룹을 대표한 이명호 (주)귀뚜라미에너지 대표이사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이성 구청장은 직접 사회공헌인증서를 수여했다.

윤재현 대표는 “구로에서 태어나 자랐고 사업도 일했다”며 “성장의 토대가 된 구로에 기여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이명호 대표이사는 “구로구에

소재한 귀뚜라미에너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귀뚜라미 그룹이 구로히어로즈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구로히어로즈 명예의 전당’ 명패 등재가 구청 본관 1층에서 진행됐다. 이성 구청장과 기부자들은 명예의 전당에 윤 대표와 귀뚜라미 그룹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달았다.

이성 구청장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구로의 ‘영웅’들이 새로운 후원을 만드는 빛이 된다”며 “구청도 나눔문화 활성화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히어로즈 명예의 전당’ 현액식에는 구로히어로즈클럽 김한기 회장과 송희순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김유권 기자>

구 전입 외국인에 ‘환영꾸러미’ 전달

마을 정보 담은 팸플릿, 내·외국인 주민 환영편지 등 전해

“구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로구가 전입 외국인 주민들에게 내달부터 ‘환영꾸러미’를 전달한다.

구는 “전입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주민과의 조화로운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영꾸러미’를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환영꾸러미’는 ‘슬기로운 구로생활 안내’ 팸플릿과 환영 편지로 구성되어 홀더에 담겨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된다.

‘슬기로운 구로생활 안내’ 팸플릿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구로 구 주요시설 안내지도, 취업 정보, 기초 생활질서(분리수거,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주차예절 등), 자녀 교육, 상호문화 정책 관련 정보 등이 수록됐다. 수록된 자료는 외국인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됐다.

환영 편지는 실제 구로구에 거



구로구가 전입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주민과의 조화로운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영꾸러미’를 마련했다.

주하는 내·외국인 주민이 전입 외국인 주민을 위해 작성한 글이다. ‘구로가 처음인 주민에게 보내는 편지’ ‘먼저 구로에 자리 잡은 당신의 이웃이’ 등의 내용으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등 6개국 주민의 환영인사가 실렸다.

정주원 상호문화정책과장은 “이번 ‘환영꾸러미’를 통해 알찬 마을 정보도 얻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도 느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 주민이 다함께 행복한 상호문화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오류동역 4호 ‘스마트도서관’ 개관

천왕역·신도림역·개봉역 이어... 무인기기로 대출·반납

“집에 가는 길, 책 한 권 어떠세요?”

구로구가 오류동역 스마트도서관을 지난달 27일 개관했다.

구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사에 스마트도서관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 천왕역, 신도림역,

개봉역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스마트도서관은 책을 손쉽게 대출·반납할 수 있는 자판기 형태의 무인자동화기기로 최대 600권의 책이 비치된다.

오류동역 스마트도서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오류동역 맞이방(3, 4번 출입구 통로) 내에 조성됐다.

구로구 통합도서관 ‘지혜의 등대’ 회원증을 소지한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카드앱’을 통해 회원증을 등록해두면 실물 카드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

스마트도서관에서는 즉시 대출·반납이 가능하며, 원하는 도서가 없는 경우 구로통합도서관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lib.guro.go.kr)를 통해 구립도서관에 있는 책도 예약할 수 있다.

1인당 5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4일이다.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스마트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해당 기기에서만 반납 가능하다. <채홍길 기자>

경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 축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구로를 실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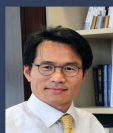
이임 이사장 이형춘



이사 강광원



이사 김현숙



이사 박재근



이사 박정순



이사 송희순



이사 신원섭



이사 이정진



이사 이수영



이사 이윤희



이사 하오자



감사 김장곤



감사 이장호



취임 이사장 조윤장

2021. 5. 13. (목) 14:00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강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8길 39, 1층(구로동, 구로누리배드민턴장)



구로희망복지재단은 구로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써 보내주신 성금과 성품은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02)867-1695 |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3회 '구로구 상호문화축제' 20일 온라인 개최

구로구시설공단 4층 꿈나무극장서 토크쇼·기념식·축하공연 등 진행

구로구가 세계인의 날(5월 20일) 기념 제3회 구로구 상호문화 축제를 오는 20일 구로구시설관리공단 4층 꿈나무극장에서 개최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행사를 최소화 하고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인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함께 만드는 상호문화도시 구로'를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오후 3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레인보우(다문화가정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축하메시지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자매도시 프랑스, 캐나다 시장,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대표 등의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 이성 구청장의 개회사가 진행된다.

이어 모범 내외국인 주민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다문화 착한가게 감사장 및 현판 증정, 표창 및 감사패 수상자 인터뷰, 서울공연예고단스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행사 2부는 '상호문화 미니 토크쇼'를 시작으로 주민참여 영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호문화'와 '코로나19를 이기는 슬기로운 생활'에 이어 '영상으로 만나는 상호문화도시 구로'가 진행된다. 이어 다문화 초중생 연합팀과 팝페라

밴드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홍보 영상으로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행복한 상호문화도시 구로'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이주민과 원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 140여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정주원 상호문화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현장 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세계인이 온라인에서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상강은 9월의 중기이다. 기러기가 날아오고, 참새가 큰물 [大水]에 들어서 조개 [蛤]가 되며, 국화가 노랗게 꽃피고, 승냥이가 짐승을 잡는다. 초목이 누렇게 낙엽지고, 땅 속에서 잠을 자는 벌레

4월 입하는 4월의 절기이고, 소만은 4월의 중기이다. 청개구리가 울고 지렁이가 나오며, 왕과(王瓜: 쥐참외)가 나오며, 씀바귀가 뻗어 오르며, 냉이 [靡草]가 죽고 보리가 익는다.

5월 망종은 5월의 절기이고, 하지는 5월의 중기이다. 버마제비 [蟾蜍]가 생기고, 왜가리가 울기 시작하며, 지빠귀 [反舌]가 울음을 멈추고, 사슴의 뿔이 떨어

24절기의 유래 ㉔

어진다. 매미가 울기 시작하고 반하(半夏: 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 까무룻)의 알이 낳는다. 6월 소서는 6월의 절기이고, 대서는 6월의 중기이다. 더운 바람이 불고 귀뚜라미가 벽에 다니며, 매가 사나워지고, 썩은 풀이 화하여 반딧불이 된다. 흠이 습하고 더워지며, 큰 비가 때로 내린다.

7월 입추는 7월의 절기이고, 처서는 7월의 중기이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리며, 쓰르라미가 울고 매가 새를 많이 잡는다. 천지가 쓸쓸하여지기 시작하고 벼가 익는다.

8월 백로는 8월의 절기이고, 추분은 8월의 중기이다. 기러기가 날아오고, 제비가 돌아가며, 뭇새들이 먹이를 저장하고, 우리가 소리를 거둔다. 겨울철 땅속에서 잠을 자는 벌레들이 흠으로 창을 막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

9월 한로는 9월의 절기이고,

들이 모두 땅 속으로 들어간다. 10월 입동은 10월의 절기이고, 소설은 10월의 중기이다. 물이 얼기 시작하고 땅이 얼기 시작하며, 꿩이 큰물로 들어가서 조개 [蛤]가 되고, 무지개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천기(天氣)는 상승하고, 지기(地氣)는 하강하여 폐색(閉塞)되어 겨울이 된다.

11월 대설은 11월의 절기이고, 동지는 11월의 중기이다. 할당새 [鷓鴣]가 울지 않고, 범이 교미를 시작하며, 여지(荔枝: 무환자 나뭇과의 상록교목)가 돌아오고, 지렁이가 교결(交結)한다. 고라니의 뿔 [麋角]이 떨어지고 샘물이 언다.

12월 소한은 12월의 절기이고, 대한은 12월의 중기이다. 기러기가 북으로 돌아가고, 까치가 깃을 치기 시작하며, 닭이 알을 품는다. 나는 새가 높고 빠르며, 물과 못이 두껍고 단단하게 언다. 〈본지 회장〉

구로 퍼즐커뮤니케이션즈- CU포스트

복지시설 '브니엘의 집'에 '사랑나눔' 행사

퍼즐커뮤니케이션즈와 CU포스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구로구 소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브

니엘의 집'을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돼 손소독제, 마스크, 소독티슈 등 위생용품과 생활가전, 식품 등 생활에 필요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브니엘의 집'은 중증 장애인 생활공동체로, 1997년 설립된 이래 서로를 감싸주며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한 퍼즐커뮤니케이션즈의 하승필 이사는 "항상 부족해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행사에 도움주신 CU포스트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퍼즐커뮤니케이션즈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위치한 광고대행사로 SNS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검색광고, 디스플레이,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의 마케팅 전문기업이다. 〈김유권 기자〉



퍼즐커뮤니케이션즈와 CU포스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구로구 소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브니엘의 집'을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열었다.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010-9096-1144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품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중식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공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 16호점 문 열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보편·상시적 돌봄서비스 제공

구로구가 지난 3일 '공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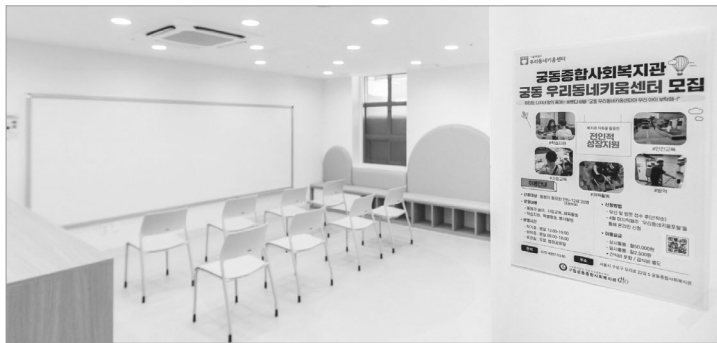
구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실시하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업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로구는 신도림동, 구로1·2·3·5동, 고척1·2동, 개봉2·3동, 오류2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등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16곳을 운영한다.

공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공동 종합사회복지관(오리로22길 5) 1층에 70.56㎡ 규모로 조성됐다. 정원은 20명이다.

센터에서는 숙제 봐주기, 학원 챙겨 보내기 등 돌봄서비스와 독서, 미술, 체육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긴급돌봄도 실시한다.



구로구가 3일 '공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했다. 구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용 시간은 학기 중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기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청소년과(860-2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이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iseoul.seoul.go.kr/icare)에서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작은도서관, 마을활력소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학부모와 이웃이 아이

를 돌보는 '구로형 온종일돌봄센터'도 17곳 운영하고 있다. 센터별 20명 내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 챙겨 보내기, 숙제 봐주기 등 기본 돌봄과 예체능 활동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구로형 온종일돌봄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해 빈틈없는 상시 돌봄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목감천 산책로 정비 현장 찾아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달 29일, 개봉동 371 일대 목감천 산책로 정비사업 추진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목감천 산책로 정비사업 착공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을 살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달 29일 개봉동 371일대 목감천 산책로 정비사업 추진 현장을 찾아 관련부서 공무원, 주민과 이야기하고 있다.

피고 사업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함께 했다.

목감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목감교에서 광명교에 이르는 2km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녹지공간이 빈약했던 목감천이 정원 조성, 수목 식재, 안내판 정비, 포토존 설치 등 새단장을 통해 경관개선 및 수준 높은 주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박동웅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업추진 경과와 공사일정 등을 간략히 보고 받은 후 산책로 일대를 직접 확인하며 개선할 점과 사업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을 둘러보며 박 의장은 "주

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개봉교 하부 진출입로 목재데크 정비 현장에 들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시설의 안전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며, 관계공무원에게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수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활동을 마친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감천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며 "목감천 산책로 정비사업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될 때까지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5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5월 17일부터 동주민센터 등서 접수

구로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돼(증빙자료 제출 필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이 6억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가구다(4인가족 경우 365만7218원). 기초 수급(생계급

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또는 올해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5월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포털(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 2부제로 운영된다.

구로구는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도 실시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재산, 소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1회 50만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운영

관내 840곳 대상... 부동산중개법 23개 항목 스스로 체크

미참여 업소 7월부터 방문점검

구로구가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운영한다.

구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불법 중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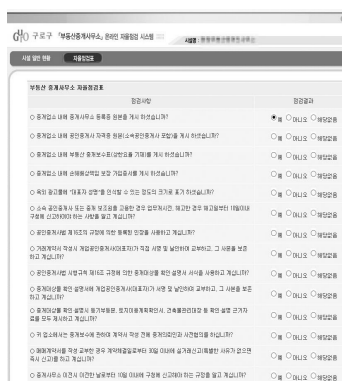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은 연 1회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6월 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4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중개사무소등록

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비치 여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적정 작성과 교부에 관한 사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법령 개정사항 숙지 여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신청권 행사 확인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페이지를 통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중개업소 정보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방문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문점검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신도림생활체육관

코로나블루 극복 '반려식물화분 나눔 행사' 열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신도림생활체육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어르신들을 위한 반려식물화분 100개를 구로어르신돌봄센터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 신도림생활체육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어르신들을 위한 반려식물화분 100개를 구로어르신돌봄센터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신도림생활체육관 직원들이 직접 만든 반려식물 100개를 통해 어르신들의 심리적·사회적 안정

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림생활체육관은 반려식물 보급은 물론 지속적으로 대상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단 유영환이사장은 "직원들이 직접 만든 공기정화 반려식물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게 되어 뜻깊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수해 걱정 없는 구로' 빗물받이 집중 관리

11월까지 주민·공무원 등 관리자 지정... 매월 4일 '덜개수거의 날' 운영 풍수해 대비 빗물펌프장·수문·대형공사장·축대·옹벽 등 일제 점검도

구로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구는 "빗물받이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주택가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집중호우 시 물을 신속하게 배출시켜 침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수해예방 시설이다.

하지만 빗물받이가 고무관 등으로 덮여있거나 쓰레기, 낙엽, 토사 등 퇴적물이 쌓이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로구는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 공무원 등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가을철 강우에도 대비하기 위해 11월까지 관리기간도 연장했다.

구로구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2만1,548개로 간선도로, 보도



구로구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인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제를 실시한다.

등은 해당부서에서, 이면도로는 통·반장 등 주민이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됐다. 평상시에는 빗물받이 청소, 파손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특보 등이 발령되면 빗물받이 막힘 등을 즉각 신고한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덜개수거의 날'로 운영하는 매월 4일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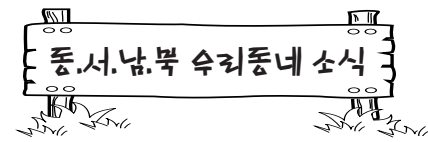
무단으로 설치한 고무관과 장관 등을 집중 수거한다.

한편, 구로구는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과 대형공사장, 축대, 옹벽 등 수해취약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했다.

각 시설별 담당 부서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했으며, 보수·보강이 시

급한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근 치수과장은 "평소 빗물받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수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 조치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1동 적십자회 '저소득 취약계층 백미 나눔 행사'

구로1동 적십자회(회장 최현숙)는 지난 달 26일 구로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백미 나눔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진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백미를 전달했다.

구로3동 자원봉사협력단 '어버이 날' 행사 개최

구로3동 자원봉사 협력단(단장 장필주)는 5월 6일 주민센터 4층 강의실에서 '어버이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관내 저소득 어르신 70명에게 포장 된 갈비탕을 드렸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협력단원 최소인원이 기념 촬영후 어르신들 댁으로 개별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3일에는 관내 저소득 어린이 5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 꾸러미를 주고,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고 격려했다.

구로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날' 행사 열어

구로4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위원장 권우기)는 5월 3일 구로4동 주민센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청소년 희망·드림'이란 주제로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 20명에게 연령대별로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

고척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이불 나눔 행사 가져

고척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창호)는 5월 6일 고척1동 주민센터 2층 소통마루에서 '여름 이불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에 여름 이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개봉2동 자원봉사협력단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

개봉2동 자원봉사협력단(단장 강명철)은 지난달 28일 개봉2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했다. 자원봉사협력단 단장과 회원들이 참석하여 저소득 3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가구에게는 현장에서 전달하고, 참석하지 않은 가구는 개별 전달했다.

구로오늘신문 시민기자

△신도림동 박순옥 △구로2동 황천주 △구로3동 김재경 △구로4동 이재환 △구로5동 박일자 △개봉1동 김지현 △개봉2동 최화남 △개봉3동 박성자 △오류1동 이순옥 △오류2동 김미자 △수궁동 염복자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1,300명 넘어

7일 현재 일주일새 30여명 늘어 1329명, 사망자 11명

서울 확진자 3만8975명-사망자 453명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가 계속돼 누적 1천300명이 넘었다.

7일 현재 확진자는 일주일 전 비해 30여명이 늘어 모두 1,32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지난주와 같이 11명이며 1,242명이 완치 퇴원, 79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206명, 해외입국자 461명 등 모두 667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돌요양병원 관련

45명, 오류동 해적집 관련 41명, 구로롤센터 관련 20명, 개봉3동 옥(유전)사우나 16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신도림동 빌딩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748명, 해외 입국 9명, 기타(조사중) 39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7일 현재 모두 3만8975명으로 사망자는 453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송파구가 제일 많은 2,216명 ▲강남구 2,034명 ▲강서구 2,031명 ▲관악구 1,849명 ▲중랑구 1,752명 ▲은평구 1,750명 ▲노원구 1,729명 ▲동작구 1,657명 ▲서초구 1,647명 ▲성북구 1,609명 ▲강동구 1,470명 ▲동대문구 1,458명 ▲영등포구 1,425명 ▲양천구 1,405명 ▲구로구 1,329명 ▲광진구 1,268명 ▲마포구 1,247명 ▲도봉구 1,213명 ▲성동구 1,058명 ▲용산구 1,035명 ▲강북구 1,029명으로 21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서대문구 942명 ▲종로구 698명 ▲중구 609명 ▲금천구 598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구로소방서, 승진·전입자 임용식 개최

구로소방서(서장 김용근)는 지난 3일 오전 승진·전입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소방위 근속 승진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승진·전입자에 대한 환영, 축하인사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은 각자의

업무능력에 맞게 현장대응단과 119안전센터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김용근 서장은 "영예로운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소방서가 지난 3일 오전 승진·전입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은 소방위 근속 승진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승진·전입자에 대한 환영, 축하인사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고대구로병원 정희진 교수, 대한항균요법학회장 취임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사진)가 대한항균요법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2년이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다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과 항균화학요법 연구, 항생제 내성 예방과 오남용 차단을 위한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정책제언 등 효과적인 항생제 내성관리 전략 수립과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

정희진 교수는 그동안 대한항균요법학회 부회장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자문단 위원,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부회장 등을 맡아 국내 감



염병 예방과 의료계 발전에 공헌을 해왔다.

정희진 교수는 "항생제

내성 문제는 신종 감염병만큼이나 세계 공중보건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민관학이 함께 힘을 모으고 국제협력도 활성화해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및 치료환경 개선, 오남용 차단공조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한만수 시인·소설가 '문예창작 실기론' 출간

일기쓰기부터 시 창작·소설 창작 등 문예 전반 다뤄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본지 주간인 한만수 씨가 지난 주에 <문예창작의 실기론>을 출간했다. 총 585쪽의 분량인 <문예창작 실기론>은 초등학교 1학년을 지도할 수 있는 일기쓰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린이 시 쓰기 글짓기,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시창작, 소설창작, 수필창작이 수록 되어 있다.

이미 '소설창작의 정석' '마법의 소설쓰기' '문예창작의 정석' 등 여러권의 저작서를 출간한 한만수 씨는 "이번에 출간한 <문예창작 실기론>은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예창작의 실기론>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문예창작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작업서에



나오는 이론은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문예적 소질을 받고 대학의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했으니, 결국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이론 중심의 교육을 소화 해 낼 수 없는 이유가 많다.

한만수 시인·소설가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것은 '문학이라

하지 말고 문예라 해야 맞다'고 주장한다. 문학과 문예는 비슷한 말 같지만 근본이 다르다.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모든 학문, 예를 들어서 철학, 인문학, 정치학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 '문예'는 예술의 하위 장르로 언어를 창조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만수 시인·소설가는 실천문학에서 장편 '하루'로 신인상을 받았고, 대하장편 소설 '금강'을 비롯하여 150여권의 소설을 출간했다. 월간 한국시에서 '역사풀'로 신인상을 받은 후에 '백수 블루스' 등 5권의 시집과 여러권의 저작서를 출간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문예창작진흥원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문예창작실기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다. <김유권 기자>

초대시

환지통

시인 마경덕



잘린 나무는 어떻게 긴 밤을 견디는 것일까
 없는가지가 사무쳐 온몸으로 댕댕 허공을 굽는다는 말,
 허공이 육신겨려
 손목이 돌는 봄을 기다린다는 말
 이것은 손톱에 때가 낀 나무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다
 피가 나게 허공을 굽어본
 보기 좋은 나무들은 손목이 없다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건 마취제일까 진통제일까

교통사고를 당한 사내도 다리가 아파 못살겠다고
 없는 다리를 만지며 엉엉 운다

의사가 말했다
 사라진 다리를 기억하는 것은 뇌라고
 걷고 달리고 걸어차던 습관을 보이는 아직 붙잡고 있는 거라고
 오래전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홀아비도
 없는 자식이 그토록 아프다고 한다

살아 있는 것처럼,
 없는 다리가 아프고
 없는 자식이 또 아프다

치장을 마친 정원의 나무들이 동쪽 허공을 문지르며 우는 밤이다

- 200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 시집 신발론, 클럽 중독자, 사물의 입, 그녀의 외로운 B형 등이 있다.

50인의 작품 '시의 끈을 풀다' 제3집 출간

58명 시인의 앤솔러지(anthology)가 출간됐다.

많은 시집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막상 책장을 넘기면 속빈 강정 같아 물음표가 절로 고개를 드는 요즘 알찬 앤솔러지가 출간됐다.

세계일보 신춘문예 출신인 마경덕 시인을 비롯하여 현대시학 출신 한정원 시인 등 나정호, 원춘옥, 유민재, 이화인, 이주리 시인 등의 시가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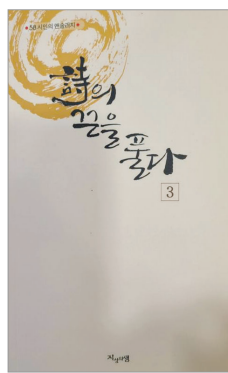
잘린 나무는 어떻게 긴 밤을 견디는 것일까/없는 가지가 사무쳐 온몸으로 댕댕 허공을 굽는다는 말, 허공이 육신겨려/손목이 돌는 봄을 기다린다는 말/이것은 손톱에 때가 낀 나무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다/ 피가 나게 허공을 굽어본/보기 좋은 나무들은 손목이 없다 (마경덕시인의 환지통 일부 발췌)

여우의 불빛을 기억하고 녹음했다/ 빙벽에 부딪혀 퍼져나가는/하늘이 부풀고 있었다(한정원 시인의 오로라 지수 일부 발췌)

왜일까, 앤솔러지에 수록된 시를 읽다보니 살아생전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한 권정생 동화작가가 떠오른다.

시상(詩想)이 펼쳐지는 무한한 상상을 엿봤기 때문일까.

생존보다 늘 한 계단 위의 자본의 틀/눈빛도 잃었다/ 부재의 좌표 위에서/잃어버린 주어를/ 저물도



록 기다렸다(이 주리 시인의 슬픔의 연대기 일부 발췌) 컴 퓨터 모니터 에 /

슬며시 내려앉은 모기 한 마리// 화살 마우스 커서로/쨍쨍째 쏘아 보지만/어림없다는 듯 꿈쩍도 않네// 아차! 모니터 안과 밖/ 가상과 현실에서 번번이 허방 짚는/ 내 근시안의 착오(이현실 시인의 안과 밖 전문)

빛을 겹겹이 껴입은 덩굴장미는 / 이 계절의 가장 밝은 등/ 일제히 심지를 세우고 유월을 밀어 올린다 (원춘옥 시인의 등(燈) 일부 발췌)

시의 편 편을 읽다보면 함께 공감하고 때론 소박한 어둠의 눈물 같다. 그러나 문장 뒤편에 감춰진 행간을 들여다보면 울곧아 푸른빛이 도는 서슬퍼런 시들이 주류를 이룬다.

더러는 따스한 위도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비판하는 앤솔러지 [시의 끈을 풀다](지성의 샘 출간)를 읽다보니 봄밤의 겹데기가 수북 쌓인다.

(조윤주(시인) 객원기자 333news@hanmail.net)





세계인의 날 기념 온라인으로 만나

제3회 구로구 상호문화 축제

유튜브 ▶ 온라인 중계

검색: 구로구 상호문화축제

2021. 5. 20(목) 15:00

상호문화 주민참여 영상 공모

기간 2021. 4. 21 - 4. 30

제출 luvnpeace@guro.go.kr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
 구로구청 상호문화정책과 (860-2099)

